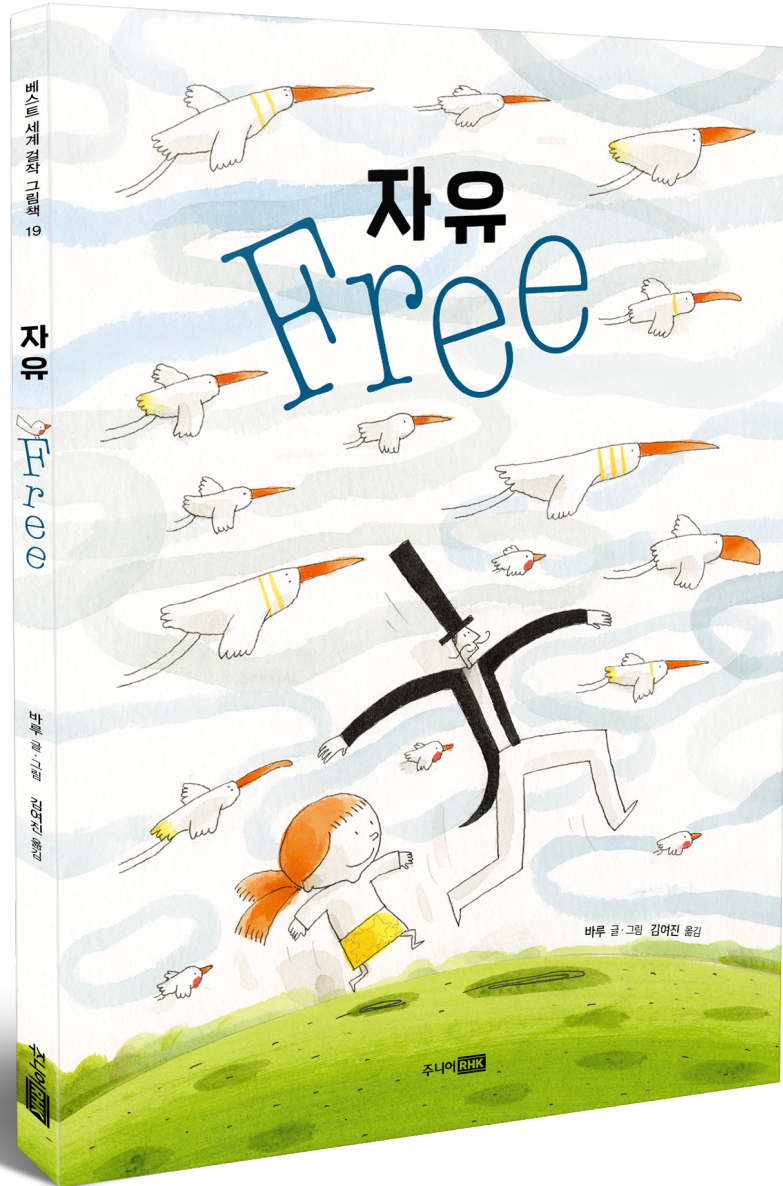


# 주니어RHK 독서 활동지 <자유>

— 현직 초등 교사 집필 · 교사 및 양육자를 위한 설명서 수록 —



## 자유

바루 글·그림 | 김여진 옮김 | 40쪽 | 13,000원 | ISBN 978-89-255-7781-4 (77840) | 초등 전 학년

**교과 연계** (해당 학년·과목·단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3, 4학년 국어 -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고 표현한다.  
-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 5학년 사회 6.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우리



## 현직 초등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 오랜 시간 독심 있게 주제 의식이 담긴 작품을 선보인 바루가 독자들에게 선물하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

“나는 자유로울까?”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15년 전쯤 일본 여행을 하며 수족관에서 찍은 사진을 우연히 서랍 속에서 발견한 순간, 저는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진 속 수족관은 얇은 바다부터 심해까지 인공적으로 구현한 엄청난 규모의 수족관이었죠. 그때 전 그곳의 해양 동물들은 운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눈을 사로잡는 환상적인 수족관 관람을 끝내고 출구 쪽으로 나가니 기념품 가게가 보였습니다. 해양 동물들을 꼭 닮은 형형색색의 인형들이 그곳에 있던군요. 그 수족관이 누구 위해 존재하는지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수족관의 해양 동물들이 빼앗긴 자유……. 이 책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저는 자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독자들이 이 책의 등장인물들을 보며 자유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 책에 등장하는 국경 경비대원은 ‘새들의 서커스단’ 단장과 소녀 팔로마는 국경을 통과할 수 있지만 엄청난 양의 서류를 내지 않는 한 새들은 국경을 통과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든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까요? 책 속의 국경은 나라와 나라 사이를 가르는 국경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체와 생각의 자유를 가두는 크고 작은 모든 ‘틀’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그 틀에 갇히지 않은 것은 어리고 작은 소녀 팔로마뿐이었습니다. 경비대원이 말한 복잡한 서류를 내지 않고도 재치 있는 아이디어로 새들과 함께 국경을 넘지요. 새들은 다시 새장에 안락하게 들어가고요. 어리지만 현명한 팔로마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과감하게 또 하나의 틀을 허뿔니다. 바로 새장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팔로마와 단장은 위대한 서커스를 보여 준 새들에게 진정한 ‘선물’로 자유를 선사한 것이죠.

오랜 시간 독심 있게 환경, 전쟁, 평화, 인권과 같은 화두를 던지며 독자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온 바루 작가의 새 작품을 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바루 작가가 선물한 책을 읽고 음미할 ‘자유’를 맘껏 누리 보세요.

김여진(서울 상신초등학교 교사)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회’ 운영진으로 매달 그림책 애호가들과 깊이 교류하며,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책을 쓰고 우리말로 옮기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 집필 도서: 《재질재질 그림책 읽는 시간》(공저), 《좋아서 읽습니다, 그림책》(공저)
- 번역 도서: 《고래야 사랑해》, 《엄청나게 커다란 소원》, 《선생님을 만나서》, 《나의 아기 오리에게》, 《동물이 좋다면 이런 직업!》, 《집 안에 무슨 일이?》, 《나는 ( ) 사람이예요》 등



# 미션 1 : 표지 꼼꼼히 살피기



책을 읽기 전 표지를 찬찬히 살펴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 봅시다.

새들이 왜  
떼 지어 한쪽으로  
날아가고  
있을까요?

제목은 보며  
책의 내용을  
추측해 봅시다.



표지의 등장인물  
가운데 누가  
곤란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게 될까요?

기다란 모자를 쓴  
남자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 미션 2-1 : 다른 나라에 가려면?



책에서 아래 장면을 찾아 살펴본 다음 2-1과 2-2 활동을 해 봅시다!  
먼저 아래 퀴즈를 풀어 볼까요?



## 퀴즈 1

'새들의 서커스단'이 공연을 위해 00을 통과해 다른 나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나라와 나라의 영역을 가르는 이 경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초성 힌트 :

ㄱ

ㄱ

## 퀴즈 2

다른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챙겨야 할 신분증이 있어요. 이 신분증이 없으면 나라와 나라 사이를 오갈 수 없지요. 이 신분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초성 힌트 :

ㅇ

ㄱ

(정답은 10쪽에!)

## 미션 2-2 : 새들과 함께 국경을 넘어라!

새들은 수많은 서류를 내야만 국경을 통과할 수 있대요. 만약 여러분이 팔로마라면? 새들과 함께 국경을 통과할 방법을 생각해 네모칸에 그림으로 표현하고 말풍선에 간단한 설명을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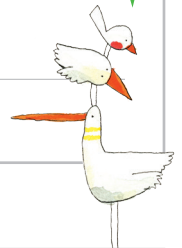
# 미션 3 : 찬성합니다 vs 반대합니다

여러분은 새들에게만 수많은 서류를 요구한 국경 경비대원의 요구가 옳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너무하다고 생각하나요? 경비대원의 행동에 찬성한다면 위쪽 빈칸에, 반대한다면 아래쪽 빈칸에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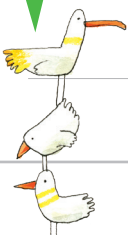
Blank lined area for writing reasons for agreement.

찬성합니다!



Blank lined area for writing reasons for disagreement.

반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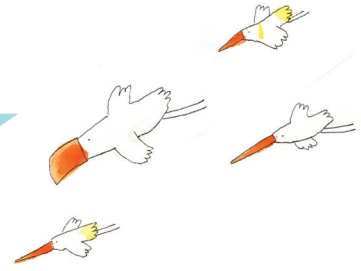
## 미션 4 : 동물에게 자유를!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좁은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 야생성을 잃을 때까지 훈련받는 코끼리 등 세상에는 원래 살던 곳에서 강제로 떠밀려 원치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런 동물들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포스터를 만들어 보세요!

# 미션 5 : 자유를 찾으려 싸운 사람들

동물은 물론이고 사람도 자유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저절로 주어지진 않아요. 자유와 권리를 얻기 위해 앞장서서 달려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이름을 넣고, 조사해 볼까요?



이름 : 마틴 루터 킹

어떤 일을 했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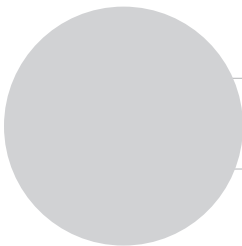
---

---

---

---

---



이름 :

어떤 일을 했나요? :

---

---

---

---

---





## 교사와 양육자를 위한 미션 안내서

6가지 단계별 미션을 해결하는 동안 아이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배우고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미션 활동에 앞서

#### 아이에게 책을 소개해 주세요.

이 책을 쓰고 그린 '바루(Barroux)'는 오랫동안 환경과 전쟁, 인권 등을 주제로 그림책을 만들어 온 작가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책에서는 동물의 삶과 이동에 대한 자유부터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는 틀을 과감히 허무는 자유 등 다양한 형태의 '자유'와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며 생각할 거리를 던져 줍니다. 이 책을 읽고 아이가 생각하는 자유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미션 활동에 앞서

#### 이럴 때 읽어 보세요.

-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상상해 보고 싶을 때
- '자유'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할 때
- 자유를 박탈당한 동물들에 대한 소식이나 기사를 접했을 때
- 자유를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의 생애를 생각해 보고 싶을 때

### 책을 읽기 전에

#### 미션 1 : 표지 꼼꼼히 살피기

책을 만나기 전 표지를 보며 책의 내용을 상상해 보는 활동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으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배경의 새들은 왜 무리 지어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표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이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함께 추측해 보세요.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제 내용과 상상한 내용을 비교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책을 읽으면서

#### 미션 2-1 : 다른 나라에 가려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가 '국경'이지요. '새들의 서커스단'이 멈추어 선 곳이 바로 국경입니다. 국경 경비대원이 서커스단에 요구한 서류 가운데 다른 나라에 가기 위해 국경을 통과할 때 필요한 '여권'도 눈에 띄네요. 퀴즈를 풀어 보고 국경이 무엇이며, 국경을 통과할 때 어떤 서류들이 왜 필요한지 등의 배경 지식에 관해 아이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책을 읽는 동안 생각의 폭이 더 확장될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미션 2-2: 새들과 함께 국경을 넘어라!**

대통령 앞에서 서커스 공연을 선보여야 한다는 단장의 애원도 국경 경비대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저 새들이 국경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줄줄 읊으며 서커스단을 가로막고 서 있을 뿐이지요.

이번 미션에서는 책을 다음 장으로 넘기기 전에 서커스단 전체가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설명해 보는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엉뚱한 아이디어라도 좋습니다. 아이가 다채로운 생각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아이의 생각이 책에 나온 해결법과 다를수록 환영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미션 3: 찬성합니다 vs 반대합니다**

국경 경비대원은 정해진 틀, 답습해 온 불합리한 원칙에서 자유롭지 못한 ‘관료주의’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어려운 용어이지만 아이들은 경비대원의 말과 행동을 곱씹으며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원리원칙을 잘 지키는 경비대원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불합리한 원칙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입장 모두를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 활동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조리 있게 풀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책을 읽고 나서

**미션 4: 동물에게 자유를!**

이 그림책에는 두 번에 걸쳐 ‘동물의 자유’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동물들은 글을 모르지요. 게다가 동물들에게 ‘국경’이라는 개념도 없고요. 인간이 만들어 낸 ‘국경’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서식지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자유’입니다. 지구상의 많은 동물이 영문도 모른채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서식지에서 강제로 옮겨져 인간이 마련한 곳에서 살아갑니다. 자유롭지 못한 동물들의 사례를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면 더욱더 풍성하게 이 책을 감상할 수 있을 거예요.

책을 읽고 나서

**미션 5: 자유를 찾으려 싸운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다양한 자유와 권리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해진 것이지요.

활동지에 제시된 ‘마틴 루터 킹’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고 자유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간단히 적어 보세요. 마틴 루터 킹 말고도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자유와 권리를 얻기 위해 싸운 인물들은 많습니다. 아이와 함께 조사하면서 자유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관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

《자유》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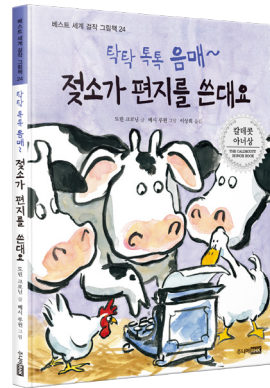
같은 길을 지닌 다양한 이야기는 아이가 세상을 좀 더 입체적이고 다채롭게 바라보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유’와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또 다른 책을 보여 주고 싶다면



《엄마가 수놓은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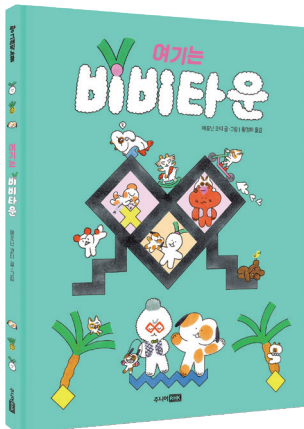
재클린 우드슨 글 | 허드슨 탈벗 그림 | 최순희 옮김



《탁탁 특특 음매~ 젓소가 편지를 쓴대요》

도린 크로닌 글 | 베시 루윈 그림 | 이상희 옮김

팔로마처럼 기발하고 재치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인공들을 만나고 싶다면



《여기는 비비타운》

에포닌 코티 글·그림 | 황정하 옮김



《사서가 된 고양이》

권우준 글 | 경혜원 그림